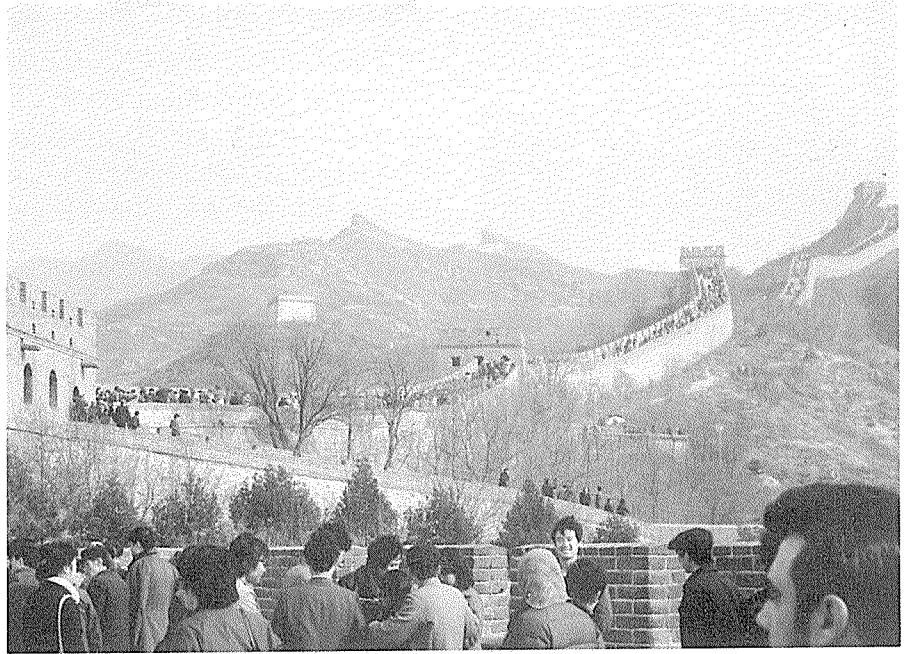


## 북경기행 (Ⅲ) A Trip to Beijing

최창규  
by Choi Chang Kyu



만리장성

### 11월 5일 저녁

인민대회의장이라면 무언가 우리들에겐 무시무시한 느낌이 드는 이름이다. 서울에서 가끔 해외뉴스 프로에서 천안문 광장이나 인민대회의장의 광경을 본 적은 있지만 막상 그 건물에서 만찬이라니 이상한 느낌이 든다. 하여간 진제국가의 전형적인 관청건물이다. 어찌면 “나치” 시대의 “나치” 전당대회의장이나 육군대학같은 위엄과 권위만을 내세운 건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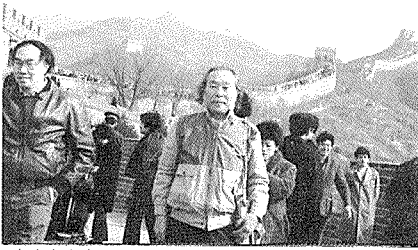
Hotell에서 대형버스 8대로 분승해서 건물정면 계단 앞에 내렸다.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는 몰라도 군인 같이 머리를 짧게 깎은 아주 젊은 청년들이 흑색신사복으로 보초처럼 양측에서 있었고 그 중 한 사람이 말없이 손짓으로만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라고 한다. 물론 일행들의 앞 가슴에 부착한 명패와 번호를 확인하고서 말이다. 이상하게도 확실히 2층대 식당이라고 했는데 왜 엘리베이터를 타라고 하는가 했더니 2층은 틀림없는 2층인데 1층의 대회의장의 천정이 높으니 4층 높이가 2층이 되는 셈이라는 것을 알았다.

대식당에는 벌써 음악이 연주되고 있었고 10명 단위의 식탁엔 식탁번호와 좌석번호와 이름이 적힌 명패가 놓여져 있었다. 나는 4번탁자석에 3번 의자앞에 한자와 영문으로 내 이름이 있었다. 각 식탁마다 중국 각 지방의 건축가들과 합석시켜 있어 우리 식탁엔 일행중 박춘명

씨와 나만이고 나머지는 다른 식탁에 나누어 배석되어 있었다.

우리 식탁엔 일본건축가 2명이 있었고 鳥魯木齊(우루무치)에서 온 중국여성 건축가도 동석했다. 바로 내 옆엔 중국 건축학회장의 친동생(상해에서 왔다 함) 되는 건축가도 있었다. 하여간 무언가 엄숙하다고 할까, 조용하고 모두가 긴장된 분위기였다.

건축학회장의 인사가 끝나고 건설부장관의 인사도 있었다. 처음보는 이상한 요리도 나왔다. 아마도 오늘 저녁엔 중국 요리의 진수를 맛보나 보다 했다. 술잔이 오가고 점점 장내가 시끄러워져 갔다. 웃음소리 등 乾杯(간배이) 健康(정강)하면서 몇번이고 건배를 한다. 음악이 조용해지고 남녀 2명의 가수가 인사를 했다. 미남미녀였고 어딘가 세련된 모습이다. 아마도 외국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온 사람이리라. 남자는 테너로 “오-소레미요” 여자는 소프라노인데 “나비부인” 중에서 “어떤 개인날”을 불렀고 재창의 박수로 몇 곡 더 불렀다. 음악엔 문외한인 나로서도 잘 부르는 노래는 못되었다. 옆에 피아노도 잘 치고 반음악가인 박춘명씨에게 어느정도냐고 귀속말로 물었더니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형편없다고 한다. 그래도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도 모르면서도 중국건축가들은 박수를 계속 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가수들의 노래를 부르면서 취한 동작이 너무나 우스웠다. 그것은 남북가무단 교환때 서울에 온 이북 가수들의 몸짓과 똑같은 동작이 어



만리장성에서 필자

서 이북 친구들이 여기 흉내를 냈구나 했다. 하기가 이북 친구들이 배울 곳이야 중국과 소련밖에 더 있겠는가? 그 촌스런 “제스추어”는 그들 세계에서는 가장 멋진 동작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후일 시내 극장에서 구경했을 때의 가수들이나 배우들의 무대 위에서의 동작이나 연사가 이북 친구들과 너무도 똑같아서 우리는 모두가 웃은 일이 있다. 막간마다 나와서 다음 순서를 설명하는 여성의 표정, 동작, 연사가 우리가 서울에서 모두 웃었던 이북의 여성이 했던 그대로여서 너무도 놀라웠다.

우리는 진귀한 요리를 포식했다. 많은 사람들이 벌써 취해서 술잔과 술병을 들고 이웃 식탁에 원정도 오갔다. 한 중국 청년이(일본어 통역이었다) 나에게 와서 일본어로 술을 권하기에 중국어로 유창하게(?) 나는 나이가 어려서 술은 아직 못마신다고 했더니 그는 입을 벌리고 “어느 지방에서 왔느냐?”고 했다. 나는 “한국에서 왔다.” “네-, 어떻게 중국어를 합니까?” “나는 과거에 북경에서 5년이나 있었다.” “네-, 어찌된 일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 “이상하네요. 나는 중국인인줄 알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일본인줄 알았지.” 했더니 그 친구는 내 옆에 의자를 끌고 와서 앉아서 “중국말을 좀 더 해 보지요.” “좋아” 하고 옛날에 익혀두었던 중국유형 가사를 줄줄 외었다(아마도 그 청년은 그 유형가를 모를테니까?). 과연 그는 입을 벌리고 놀라면서 말을 못했다.

대식당 입구에 난생 처음 보는 큰 동양화가 걸려 있었다. 그 그림 솜씨도 대단했다. 그 그림 앞에서 모두들 사진을 찍기도 했다. 기대했던 이 대만찬도 우습게 끝나고 모두가 열을 지어 현관 대계단에 내려 왔을 때 불빛에 희미하게 보이는 건물을 쳐다보고 있노라니 일본의 青木교수가 “최선생, 이 건물 어떻게 생각합니까?”하고 묻는다. “이것은 전형

적인 전제주의 건물이지요. 난 이 건물이 별로인데.” “동감입니다. 이들은 왜 이런 건축을 해야 할까요? 알다가도 모를 일인데.” 하면서 깔깔 웃는다. 나도 웃었다. 갑자기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크게 나니 옆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의아한 눈으로 우리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 11월 6일

어제 같은 쾌청한 날씨가. 오늘은 일행중 박춘명씨만은 상해를 거쳐 귀국하고 9시에 출발해서 “명13릉”과 “만리장성”으로 향했다(같은 방향이므로). 명13릉은 이름대로 명조제왕들의 능군을 말한다. 북경 서북 50km 지점의 수려한 산록에 군재해 있다. 주삼도의 거리는 7km나 되고 많은 거석으로 낙타나 해태·코끼리·말 등의 동물상과 무신과 문신의 거상들이 양측에 나열되어 있어 장관을 이루고 현재에 보아도 제왕의 권력이 어마어마 했음을 알 수가 있다. 능중에서 3대의 영락제의 능묘가 가장 크다.

중국의 왕릉들은 특이하다. 소위 지하궁전이라 부르는 지하궁이 있고 생존시의 유품들과 아울러 목관이 엄중히 방부되어 그대로 안치되어 있고 촛대엔 불이 켜져 있고 의자나 신변의 사용했던 도구들이나 보·화 등이 진열되듯 수장되어 있다. 특히 14대 万曆帝는 생전에 자신의 능은 6년간에 걸쳐 건립하고 죽어서 그 속에 들어 있다가 지하실 상부에 화려한 누각같은 건물을 세우고 그 뒷쪽에 토분을 커다랗게 해서 위장하고 있었다. 지하궁전이란 지하실은 이때까지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1957년경에야 발견되어 발굴해서 관람하게 했고 보물들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물론 제왕의 관 옆에는 왕비의 관도 몇개씩 놓여져 있는데 대개 2명의 정부비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 명13릉의 초입구의 들판에 “헬리콥터장”이 있어 가끔씩 헬기가 떴다 내렸다 했다.

통역인 한여사에게 물었더니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아마도 육군의 헬기장이겠지요? 하고 했으나 운전사 장씨가 “그것은 명13릉과 만리장성 상공을 30분씩 날으는 관광용 헬기”라고 했다. 나는 헬기장에 달려가서 장교를 만나 물어 보았다. “우리 일행 11명이 있는데 이 헬기를 전세낼 수 있느냐?” “헬기가 한번

떨 때는 17명 만원이 되어야 뜬다”고 한다. “우리 11명이 타고 17명분의 요금을 내면 되지 않겠는가?” “좋다 할 수 있다.” “기다려 달라”하고 버스에 달려와서 일행에게 전했더니 전원 와— 하고 타자고 했다.

한여사와 장씨도 덕분에 “헬기를 타 볼 수 있다면서 좋아 했다. 물론 요금은 1인당 우리 돈으로 4만원 정도였다. 이날은 약간의 안개가 끼어서 사진 찍기에 나빴지만 육안으로 명13릉의 전경을 보았고 더 서북쪽 산악지대로 비행해서 만리장성 상공에서 4~5회 선회했다. 이주저공으로 비행할 때는 성벽 위의 많은 사람들 위로 얼굴을 알아볼 정도로 날았다.

그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일행은 사진도 많이 찍었고 만리장성을 상공에서 보았고, 팔달령 정상 위를 몇번이고 날았다. 나는 40년전 이곳에 여러번 와 본 일은 있어도 이번처럼 헬기로 상공에서 보기는 처음이고 우리 일행중의 대부분은 헬기를 난생 처음 타 보는 일이므로 몹시 기뻐했고 신기रो와 했다. 이윽고 다시 명13릉 전면의 헬기장에 돌아와서 다시 버스로 장성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직접 걸어서 장성에 오르는 것이다.

만리장성!

소련의 우주인 ‘유리가가린’이 우주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지구는 푸르고 아름답다”라는 책을 썼다. 그 책의 첫머리에 외계에 나가보니 지구는 푸른 색으로 몹시 아름다웠고 알아 볼 수 있는 것은 만리장성 뿐이었다고 했다. 그의 말대로 만리장성은 지구상에서 인간이 구축한 구조물로서는 제일 거대한 것이다. 그 웅대함과 긴 역사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데 충분하다.

그 역사는 2,500년전 周朝말기에 북방의 흉노족의 침범을 막기 위해 시작됐고 그후진나라의 시황제가 30만의 병력과 수천만의 백성을 동원해서 현재의 원형을 구축했고 그후 각왕조마다 보강하고 증축해서 동쪽은 산해관에서부터 북경부근 팔달령을 거쳐 황하를 건너 “실크로드” 북로를 따라 고비사막을 거쳐 감숙성가 곡관에 이르기까지 6,500km나 되니 반드시 만리길이라고 해서 만리장성이 아니고 만리는 길다는 뜻이고 정확한 거리는 15,000리나 되는 셈이다.

근자 고고학자의 설에 의하면 만주 봉천을 거쳐 압록강 연안에서도 그 흔적이 있고 서쪽은 멀리 “우랄알타이” 산록 까



탑승했던 중공의 헬기앞에서

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니 더욱 고대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 길이는 수만리나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민족이 북방민족의 침범을 막으려 했던 것은 틀림없는 일이고 요소에는 수 많은 관문이 있어 통과증을 발행해서 검문 통과케 했고 통과증은 각양으로 되어 있고 나무로, 쇠로 만들어졌고 지방 마다 양식과 기입된 내용이나 글자가 달랐다고 되어 있다.

관문에 북쪽 면에서 무서운 인왕상이나 맹수들의 상이 조각된 곳도 있다. 성의 규모나 구축방법, 사용 재료도 각양각색이고 그 지방에서 구득할 수 있는 재료가 사용되어서 석재, 목재, 전석, 연와, 황토 등 아주 다양하고 산악지대의 성벽과 평지나 사막지대의 성벽의 높이나 구축방법도 지방마다 특색이 있다. 아마도 지방마다 할당부역으로 구축했을 것이고 기록엔 동원된 총인원 민병 합해서 수천만에 이르고 공사 도중 사고나 병사 등으로 희생된 사람만도 천이백만명이나 될 것이라고 하니 놀라운 이야기다. 이 집트의 “피라미트” 등은 비교도 안 되는 규모임을 알 수가 있다.

인류 역사상 거대하고 유명한 건축물엔 그럴사한 설화가 있게 마련인데 우리의 경복궁 조영시만 해도 민원의 소리가 경복궁 타령으로 나타났다고 하듯이 이 만리장성엔 너무도 많은 설화나 그 유적들이 도처에 나고 있다.

산해관쪽의 맹강여사당이나 양귀비묘, 왕소군의 묘소, 망부암, 등등 그 일화들의 내용은 소설로 전기로 현재도 중국에 전해 오고 있다.

그 중 하나의 예만 들어서 보면 맹강여사당인데 신혼 다음날 신랑이 정용되어 공사에 나가 사고로 죽은 다음 신부의 원한이 매일 밤 구축한 성벽을 무너뜨리므로 이 사실을 알고 사당을 지어 제사를 지내줌으로 해서 멈추었다는 이야기 등이다.

연년이 뻗어나간(산악의 능선을 거미줄 같이) 성벽의 요소요소에는 둔소, 봉화대, 망루, 초소가 있고 가끔 대부대의 주둔지도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황토만으로 반공법이란 방법으로 구축한 벽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은 석재보다도 대자연의 풍화작용에 흠이 더욱 견고하다는 생각도 든다.

저용관문을 지나 필달령 부근의 성벽엔 수많은 관광객이 붐비고 높은 곳엔 사람이 적어서 젊은 청년들만이 수명 오르고 있을 뿐이다. 통역의 한여사가 설명을 하면서 아주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신이나 있었다. 그녀는 모택동이 언제인가 이곳에 와서 쓴 시를 소개 하기도 했다. 그 시를 풀이해 보면 “남아대장부라면 만리장성에 올라 보아야 한다. 가을 하늘엔 흰 구름이 흐르고 원한을 끊은 기러기는 남쪽으로 날아갔고 오성홍기는 서풍에 휘날리는데 내 손엔 앵두나무 꽃가지를 들고 있으니 언제나 이곳에 청룡을 잠들게 할 것인가”라는 시였다.

과연 여유있는 거인다운 시정이라고 생각했다. 이 시를 듣고 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성벽에 기대어 서서 북쪽을 바라 보았다. 어린 시절 서당에서 연어 배운 한시로 오언절구 몇수를 노트에 적어 보았다.

遠來高麗國 今上萬里城 秋天片雲淡 朔風古今同

屈指數千古 英傑去不在 雄志散何處 山寂人不語

延延陵上城 只在編紅旗 城上飛濼尿 麗虹立沙膜

나의 줄시를 풀이하면,

“멀리 한국땅에서 와서 이제 만리장성에 오르고 있다. 가을 차거운 하늘에 조각 구름만 맑는데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옛이나 이제나 같구나.

손뎀이 먼 옛날을 세어 보나 그 때 영웅호걸은 간 곳 없구나. 당시 큰 뜻은 다 어느 곳에 사라지고 있을까, 산은 고요하고 사람들 말이 없구나.

오직 능선을 따라 성만 길게 뻗어 가고 그 위엔 오직 오성홍기만이 필력이누나 성벽에 기대어 길게 한줄기소변을 보았더니 고비사막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이는 구나(독자제현! 나의 이 장난기 어린 줄시를 웃어 주십시오.)”

북경인민대학생 3명이 나에게 다가와서 기웃거리면서 나의 시 쓰는 것을 엿보다가 “당신은 일본에서 왔는가?” “아

니다. 나는 한국에서 왔다.” “한국은 우리와 같은 글자를 쓰는가?” “아니다. 우리글과 한자를 병용한다.” 그들은 기이한 표정으로 시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끄덕한다.

나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학생인가?” “북경인민대학 3학년생들이다” “40년전 일본인들이 중국에 대해 한 일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 “그런데 보아라. 여기 일본인들이 많이 와 있으니 어찌 된 일인가?” “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두번 속지는 않는다. 그들은 언젠가 다 쫓겨나갈 것이다.”

나는 그 학생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그 단호함에 놀랐다.

나는 성을 내려와서 귀로에 차 중에서 한여사에게 시를 보여 주었더니 놀라면서 최선생도 시를 씁니까? 참 좋은 시입니다”하면서 적어서 가졌다. 후담이지만 금년 3월 중순에 한여사에게서 편지가 왔다. 내용은 좋은 시를 많이 쓰십시오. 86아시안 게임에는 아마도 서울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좀 보내 주십시오”라고 왔다.

여하간 만리장성은 중국의 제일의 관광자원이다. 호텔 커피숍에서 만난 많은 외국인들도 이 만리장성엔 놀라고 감탄하고 있었다.

저녁 무렵 귀로에 올랐다. 차중에선 모두가 말이 없었다. 오늘은 북경에 와서 가장 놀라운 구경을 한 셈이다. 헬기를 타고 장성을 보다니 예상못했던 일을 한 것이다. 바람이 일고 저녁 노을이 물들려고 했다. 도중의 운하나 도로 공사를 하는 곳이 많았다. 호텔에 도착했을때는 해질 무렵이었다.

우리 북경에 와서 많은 중국요리를 먹어 보았지만 그 유명한 북경오리(베이징 까오야 Bzijing Duek)을 못먹어 보았다. 몇번이고 시도를 해 보았지만 하도 유명하고 몇일전 부터 예약을 해야하고 까다롭고 힘들었다. 그래서 나는 호텔 후론트에 가서 운전사 한 사람을 골라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 오늘 저녁 10명이 오리를 먹어야겠다고 했더니 “便宜房烤鴨店”에 부탁을 <sup>ㄷ</sup>보라면서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나는 전화를 걸고 주인을 바꿔달라고 했다. 주인이 전화에 나왔다. 어설플 중국어로 통사정을 했다. “한국인이 모처럼 북경에 왔다, 건축국제회의에 참석했다, 내일 귀국해야 한다, 돈을 더 내도 좋으니 10명이 오늘 저녁 꼭 가

고 싶다.”

별별 거짓말을 섞어서 부탁을 했더니 전화를 끊고 기다리라고 하더니 곧 전화가 왔다. 지금 곧 오라고 한다. 특별히 10명분 자리를 만들었다고 한다. 신이났다. 일행에게 저녁을 먹지 말고 곧 현관에 집합하라, 소원성취 됐다고 떠들었다. 운전사의 안내로 택시 2대에 분승해서 崇文門 밖에 있는 “便宜房烤鴨店”에 가서 주인을 찾아 전화한 일행이라고 했더니 특별히 만든 10명분 식탁으로 안내 했는데 바로 주방 옆 후진 곳에다 임시로 둥근 식탁을 준비해 놓은 것이었다.

북경오리! 이것은 전세계에 알려진 북경요리의 명물이다. 큰 오리를 통채로 250도의 고로에서 구워내고 물엿을 발라서 또 굽고 몇번 반복해서 구워낸 것인데 갖은 양념과 밀가루로된 아주 얇은 전병에 파를 곁들여서 싸서 먹는 요리이다.

구운 오리를 객석에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적은 칼로 솜씨있게 오리고기를 깎아낸다. 우린 가져온 오리를 깎기 전에 탁자 중앙에 놓고 사진을 찍고나서 깎으라고 했다. 일행은 맛있게 포식을 했다.

이 요리에 알맞는 술도 있다. 다른 채(菜)들도 곁들여서 나온다. 일행 전원이 배부르게 먹고 나서도 많이 남아서 유지에다 싸가지고 호텔로 가지고 왔다. 다음날 아침 식사때서야 다 먹어 치웠다.

이렇게 어렵게 우린 북경명물을 맛보고 왔다. 호텔에 돌아와서도 아직 밤이 이르니 한여사에게 말해서 북경에서 또 유명한 가무와 곡예를 하는 인민 극장에 가기로했다. 배부르게 북경오리를 먹었겠다 기본들이 좋아져서 일행은 어린이들 처럼 신이어서 王府井가에 있는 大柵欄胡同의 그리 크지는 않아도 이름있는 북경대극기 극장을 갔다.

이 극장에는 제법 관객이 만원이었다. 한여사의 도움으로 중앙 좋은 자리를 내주었다. 중국은 곡예(아크로바트)가 유명하다. 국제 체조경기에서 “통빠이”나 “리닝”은 몇번씩이나 우승을 한 적이 있다.

무대에 각양의 마술, 무용, 가무, 곡예가 상장되었으나 우리에게 그리 흥미로운 것이 못되었다. 무대장치의 어설피름이나 촌스러움이 보였고 노래와 춤은 세련되지도 못하였다. 마술과 곡예가 놀라웠을 뿐이다. 그런데 여기와서 보니 생각나는 것이 있었다. 전번 우리의 남북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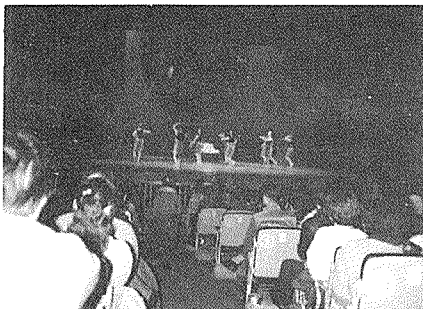
술단교류 때 서울에 온 북한 연예인들의 실연을 서울시민들은 TV를 보고 웃어댄 적이 있었지만 어쩌면 그들의 노래 부르는 동작이나 표정, 몸짓이며 막간에 한 여인이 나와 다음 프로를 안내할 때의 목소리와 억양, 동작까지도 여기 이 극장에서와 똑같이 했기 때문이다. 우리 일행이 깔깔 웃어댔더니 한여사가 연기를 잘 해서 웃는줄 알았는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설명도 해주었다. 어떤때 무대효과로 드라이 아이스를 사용해서 무대 전체에 안개가 나게 하자 관중들이 박수를 요란하게 치고 있었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광경이었다. 한여사가 내 귀에 대고 한국에도 저러한 무대효과를 내느냐고 물어 왔다. “한국에선 저런 것은 옛날에 다 지나갔고 현재는 전광포포나 전자광선으로 한다”고 했더니 시무룩해 했다. “86 때 서울에 오시요 그때 신나는 구경을 시켜 주겠요.” “아마도 우리 선수단의 한국어 통역으로 가게 될 것이요.”라고 대답하면서 기대하는 눈치였다.

무대에선 단극짜리 경극도 했다. 이 경극이란 중국에선 일반대중의 연극활동의 주축이 되는 것으로 멀리 孫文 선생의 혁명시(삼민주의를 제창한 중국혁명) 젊은 청년당원들이 관현에 수배되거나 쫓기게 되면 이 경극단에 들어와서 가면을 쓰고 지방으로 순회공연하면서 계몽운동과 선전활동을 한데서 부터 시작 되는데 원래 중국의 고대 연극이나 삼국지중의 혁명적인 사건을 각색해서 대중에게 계몽하는 그런 신파연극이었다.

순국정열에 불타는 혁명청년들이 지방 오지로 순회하면서 부터 전국에 퍼져서 현재도 지방 각 인민공사 등에서 수천개의 연극씨들이 있어 대중문화 활동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요즈음 등소평의 전방위개방 정책에 순응해서 경극의 내용도 그 방향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다고 들었다.

극장은 밤 늦게야 끝났다. 거기를 나

북경의 인민극장에서



와보니 아주 조용했다. 통금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북경의 거리는 밤 10시만 되면 조용하다. 아침 직장이 일찍 시작되는 것과 별로 놀고 마실 곳이 없기도 하고 경제적인 여유도 없기 때문일 것이다.

바람이 일어 밤거리엔 쓰레기가 이리저리 굴러 있었고 가로등 불빛도 차가워 보였다. 늦은 밤의 서울 거리와는 전혀 다른 광경이었다. 술취한 사람들이나 “아베크”족들은 있을 수도 없었다.

## 11월 7일

북경의 전체 일용품이나 기념품의 물가는 매우 싸다. 앞서서도 말했지만 포목으로 된 중국 신발이 한켠레에 우리돈으로 300원 정도였고 특히 그 유명한 우황청심환이나 편자환 등의 한방 약품은 물론이고 필, 목, 연 등도 비교적 싼편이었다. 사실 우황청심환은 우리것이 더 좋은데 모두들 중국 것을 치고 있으나 이것은 일본인들이 근자에 와서 신약보다 한방약이 유행되고 있는 바람에 중국 관광에서 한방약들을 많이 사가는데서부터 시작된다.

우리 일행도 호텔 매점이나 대약방에 가서 한 갑 살려고 해도 어딜 가든지 품절이라는 것이다. 알고보니 일일본식 공장에서 각 매점에 배당 분배되는데 오진 중에 일본인들이 거의 매점해 버린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 약들이 일본에 가지고 가면 상당한 고가로 처분되니 여비를 벌고도 남는다는 이야기이다. 웃지 못할 일본인들의 상흔이다. 우리 일행도 겨우 찾아서 기념으로 우황청심환이나 편자환을 한 갑씩 샀을 뿐이다.

거리엔 어린이들의 머리에(여아들) 꽃리본을 달고 다니는 것이 눈에 많이 띄었다. 이복 사진이나 TV를 보면 이복여아들의 머리에 달고 있는 그런것 들이다. 아마 이것도 극장에서와 같이 이복은 모든 유행이 중국에서 본 딴 것이라고 생각된다. 남아들의 모자는 거의 쓰지않고 있으나 가끔 군인들의 장교모를 쓴 것을 가끔 보았다. 군인가족의 자녀들인지는 몰라도 어린 아이들에게 군장을 한다는 것은 귀엽다기 보다는 소름끼치는 느낌이었다. 마치 2차대전시에 일본 동경거리에서 어린 남아들의 복장이 군복과 군모가 많았던 것과 비슷했다. 그 사회가 군국주의이거나 전쟁의 분위기가 있을 때

는 어린이들의 복장이나 장식이 군대식으로 된다는 것은 무서운 일일 수 밖에 없다.

북경에선 王府井 부근과 북경반점, 天安門 부근이 가장 중심지인데 이곳은 옛날 고목이 울창했던 곳이나 현재는 그 나무가 모두 벌채되고 의식이나 행사용의 계단식 좌석이 설치되어 아주 옛 모습을 볼 수가 없다. 나는 옛적에 이곳에 가끔 와서 청담하는 것을 구경한 적이 있다.

淸談이란 아직도 중국엔 각처에서 가끔씩 있는 모양이다. 청담이란 일종의 정신수양의 모임인 것인데 계율이 엄하다. 이 청담에 참석할 수 있으려면 연령이 40세가 넘어야 하고, 사회에서 쓰는 말과는 달리 청담용어가 있어 이것을 배워 잘 해야 하고, 경제나 정치에 관한 이야기는 일절 못하고 오직 예술이나 화조풍월에 관한 이야기만 해야 하고 음성이 높아서 안된다. 나는 그때 중국 촌로에게서 이 청담에 대한 것을 자세히 들은 바 있고 또 직접 청담을 구경한 경험이 있다. 그 광경은 몹시도 엄숙했다.

고목이 우거진 그늘에 간략한 울타리를 치고 한쪽 구석에 동자가 철 솥에 연못에서 연잎 위에 맺힌 이슬방울을 모아서 그 물을 끓이고 鳥龍茶나 龍井茶 등의 명차를 다려서 말없이 조용히 따른다. 차를 다리는데도 작년 봄에 잘라둔 버드나무 가지로 불을 지펴서 물을 끓여야 한다.

청담거사들은 한 모임에 30명에서 40명 정도이고 그 이상은 안된다. 반드시 중국식 복장을 해야 한다. (두루마기 같은 소매가 긴 옷) 담배와 술은 일절 금물이다. 이렇게 모여서 3시간 정도 화조풍월 이야기를 특수용어로 하고 헤어지는 수양회인데 정숙, 엄숙, 연숙 해야 하므로 숙행이라고까지 부르기도 한다.

그 광경은 마치 동양화에 나오는 수도사도라거나 할까? 중국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특이한 광경이었음을 상기했다. 그러나 지금 이곳은 변창한 대가리가 되어 버렸다.

중국엔 음식, 기호, 취미, 놀이, 정신수양 등 모두가 긴 역사와 전통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나라에선 볼 수 없는 특이한 것이 많다. 일일이 그 설명을 할 수는 없어도 하찮은 것들에도 그 나름대로의 역사와 전통이 깃들여 있는 점에서 볼 때 건국의 역사가 오천년이 넘는 나라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간성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무게라고 생각된다.

역사상 중국은 많은 외족이 침입해서 통치를 한 적이 있지만 그 외족들이 자기의 문화를 이 땅에 퍼칠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 땅에 장구한 역사와 문화에 휘말려서 흡수되고는 쫓겨나갔다는 점이다. 원, 청, 일본이 그러하다. 속된 말로 태평양에 소변을 보고 태평양이 소변화하리라고 했다가 소변이 태평양 물에 희석되어버린 셈이 되는 것이다. 풍속, 민속, 민예가 그러하고 극소에서 극대까지없는 게 없고 어수룩하면서도 할 일을 다하는 그런 것이다. 명생활 의식이나 개념, 생사의 관념까지도 특이하다는 것을 느꼈다.

일찌기 중국인들은 중원사상을 가졌고 우주의 중심이 중국이라고 했고 중용지도를 주장했고 도교와 유교를 병선 시켰고 주역과 제명사상이 강했다. 우리가 말하는 만만적(만만테-)는 Slow motion이 아닌 침착한 만사에 절대시간성을 존중하고 우주원리에 순응한다는 그런 처세철학인 것이다. 그들은 그러면서 초조하지 않고 인류 최대의 구조물을 구축했고, 동양철학을 정립시켰고, 문자문화를 창시했고 사상의학에서 손자의 병법이나 각종 무술을 예술화시켰고, 주역같은 우주철학을 논했고, 상술과 수양도행동 다양각색의 학문을 이룩한 민족이었으나, 한때 침체해서 잠자는 호랑이라고까지 불리웠던 것이다.

그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일본이 밟아서 잠을 깨게 한 셈인데 현재 중국은 미미하나마 그 본성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만 같은 느낌이다.

원자로나 핵폭탄 제조, 노벨물리상, 유전 개발, 전방위개역 정책 등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 중공수립 후 대약진, 방화혁명, 문화혁명 전방위개방의 4단계의 대정책에서 현재는 대정리의 단계로 들어 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이나 소련에 대한 수정주의로서의 대립은 대립이 아닌 우위점령이라고까지 보는 것이다.

그들은 4천여년전에 인류 최초로 문자를 창시해서 문자문화를 이룩했고 이 땅에는 4십만년전 인간들이 살았다는 증거로 북경원인의 유골이 출토되기도 했다. 지하의 무한한 부존자원들이 12억이 넘는 인적 자원들, 대유전, 대염산 등이 아직도 부지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



북경의 유치원

등을 생각해 보면 과연 대국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모택동은 만리장성에 올라 정치와 자연과 미래를 장부의 응지로 표현하고 있다. 서구문화와 동양문화가 착종된 혼란이나 시차가 보이는 하지만 미래성에 대한 의지와 자원면에서는 전도가 창창한 나라임에 틀림없다.

그 어느때 우리의 고선지장군이 감숙, 청해의 땅에 멀리 고비사막을 지나 중앙아세아고원에까지 칼을 휘두르고 최치원이 당에서 문명을 떨쳤고 동명대왕이 료동을 석권했고 광개토왕이 동이(만주)일대를 통치한 적도 있다. 근래에 와서도 우리의 무정이 모택동의 대장정의 총지휘자였음도 잘 알려진 바이지만 지구상의 시운이 흥미한 이때 우린 지금 이 나라 수도인 북경에 와서 거리에 일본 간판들을 보았고 지방 작업장에서 일본 건설자들을 보았고 홍수같이 밀려든 일본 관광객을 보았다.

그리고 그 틈을 엿보고 기회를 노리는 서구인들을 보았다. 언제 이 대륙에 우리의 건설역군들의 힘찬 모습이나 기기들의 굉음을 들을 수 있을 것이며 거리마다에 우리 상품이나 우리 말이 쓰여질 것인가.

체격도 얼굴도 문자도 우리와 같은데, 오직 정치이념이 다르고 미수교국이라는 점에서 적성국가라고 부를 수 만은 없을 것 같다. 무언가 우리도 움직여야 할 것이 아니냐는 안타까움이 있다.

일개의 여행객으로 여기 서 있으면서도 푸르디 푸른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짙— 하고 가슴에 닿는 그런 사념에 잠겨서 동쪽을 멀리 쳐다보았다. 거기엔 우리의 조국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음 호에)